

2) 장단기발전위원회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제안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제26회 총회입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독교대한감리회 특별위원회(2007년 교리와 장정 264단 제163조)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4월에 처음 조직되어, 제26회 총회와 제27회 총회를 위해 감리교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감리교회 사태로 인해 감독회장직이 공석이 되고 총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본 위원회가 제안된 정책들은 전혀 채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회 총회를 위해 구성된 장단기발전위원회로서, 본 부파송위원들과 연회파송위원들 및 연구위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2013년 8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총회까지 감리교회의 발전 과제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장단기발전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연구 과제를 정하였습니다.

- ①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 향후 10년 이후의 감리교회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감독회장의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 감독회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과제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② 제26회와 제27회 총회에서 활동한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내용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하였

습니다.

- ③ 제27회 총회의 장단기발전위원회는 ‘감리교회의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신학적인 성찰과 신앙적인 반성을 통한 ‘섬김의 영성’을 키워드로 채택했습니다. 이 ‘섬김의 영성’은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제를 수행해가는 기본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섬김의 영성’이라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은 세워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감리교회의 이미지는 바닥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목회현장에 있던 비전교회는 물론이고, 중·대형교회들도 선교활동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30회 총회의 장단기발전위원회는 미래의 감리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삼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목회경쟁력이란 목회자간의 경쟁 혹은 교회간의 경쟁을 통한 승자의 능력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목회경쟁력이란 ‘감리교회와 감리교 목회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력 강화란, 바로 이러한 신실한 충성이 가능해지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총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제30차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세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분과는 ‘정책분과위원회’로서 은급제도의 개선 및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 ① 삶의 질과 보장성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신은급법의 개선’ 또는 ‘새로운 은급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 ② ‘부조형식과 수익자분담 원칙’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③ 기금 확대를 위한 기금 ‘수입원의 다변화’를 제안합니다.
- ④ 은급기금을 국가기관에 준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분과는 ‘제도개선분과위원회’로서 감리교회의 여론수렴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사항을 제안합니다.

- ① 감리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첫 과제로 ‘연금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 ② 모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감리사와 감독의 선출 장소를 ‘연회에서 지방회로, 총회에서 연회’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 ③ 감리교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감독선거권의 확대’와 ‘감독회장의 선거인단 선출 방법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 ④ 감리교회의 선교집약적인 행정체계를 위해 ‘제비뽑기 간선제도,’ ‘당회와 구역회의 통합,’ ‘지방회의 통폐합,’ 및 ‘연회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제3분과는 ‘미래사회와 감리교회위원회’로서 감리교회와 목회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 ①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체교회의 선교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연회’와 ‘광역지방회’를 제안합니다.
- ② 개체교회들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목회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 ③ 은퇴 목회자와 은퇴 이외의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의 행복한 삶을 돕는 ‘목회 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④ 감리교회 목회자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학교육과정’ 개정과 ‘공동신학교재’의 발간, ‘전문연구소’를 제안합니다.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준택**

서 기 **육성수**